

무심한 사람... 일체의 마음이 없다

이처럼 밝고 어두운 경계가 서로 바뀐다 해도, 허공의 성품은 특 트이어 변하지 않는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도 이와 같다.

《화엄경》에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사삼 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고 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단지 부처, 중생,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 구분을 지을 뿐,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뒤엎힌다 하더라도 결코 분별하지 않는다. 허공이 온갖 구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허공 본래의 모습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처럼, 부처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인 체성도 비록 수없이 많은 그림자를 그려낸다고 해도 그 본래의 모습은 둘이 있을 수 없다. 허공은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아니듯이, 부처와 중생 또한 그 바탕은 같다는 뜻이다.

만약 부처를 관(觀)하면서 청정하고 광명한 해탈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중생을 관하면서 더럽고 어두우며 나고 죽는 모습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양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이 한 마음일 뿐, 다시 티끌만공의 어떤 법도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심체(心體)를 깨닫지 못하니, 다시 마음에서 마음을 일으켜 밖으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약법이지 깨달음(菩提)의 도가 아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이다. 자기를 제대로 알아 깨달으면 부처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이렇게 간단하다. 자기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의 행을 실천하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중생이 되어 괴로워하며 분별한다. 한 생각 돌이켜 바로 '이것이'는 것을 깨닫고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르다 보니 밖에서 찾고 구하려 하면서, '되니, 안 되니'를 따지니 또 다른 허물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믿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면 넘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지나친 욕심을 내니, 본심을 잃기가 십상인 것이다.

무심(無心)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심도인 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금강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칠보로 삼천大千세계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는 뜻이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불공드리고 공양 올리는 우리 불자들로서는 이런 말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한 생각 돌이켜 깨달은 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지만,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6>



범야사 주지

밝고 어두운 경계 바뀌어도 허공의 성품 변하지 않는다
마음·중생·부처 차별 없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되니·안되니' 밖에서 구하고 욕심 지나쳐 본심 잃는 것

털처럼 많은 이 지견 구해도 도를 깨친 이 뿔처럼 드물다

보현행이라 말하는 순간 이치로 말하는 소리에 불과

근기가 하열한 중생이라면 이 말에 '옳다·그르다', '좋다·나쁘다' 시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다가 일체 강물의 흐름을 다 받아들이듯, 무릇 불자라면 소화하지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환철해야 한다.

어째서 그런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으로 묘한 말이다.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어떠한 말도 다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일체의 시비논란을 부정하는 사구백비(四句百非)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고 할 때, 환철한 기운을 써서 그 즉시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한 본체가 안으로는 목석같이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도 없고,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일고 없음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이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의지해서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다. 막상 바람을 보고는 물러나서, 대개 널리 지견(知見)을 구하는 것이다. 자고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털처럼 많아요, 정작 도를 깨친 이는 뿔같이 드물다.

'목석같이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는 무심도인의 경지를 그대로 말할 것이다. 아예 공부 가 무었인지 모르는 입장에서 두려울 것도 없지만, 눈은 열었는데 아직 애매모호한 것이 남아 있는 입장에서 경우에는 따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해가



그림·김홍인

되는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자주 다가오면 당황하여 아찔한 생각에 베팅 끝에서 해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급한 마음에 이치를 구하게 된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 벗어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든 않든 전혀 상관없다. 도를 깨친 사람은 어느 것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실행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실로 텅 비어 거림 없는 도리이고, 실행이란 상(相)을 여윌고 끝없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다. 안목을 갖춘 입장의 실천이란 부처님 법과 이웃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보살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현보살의 행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입 벌려서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로 말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보현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안목을 열어서 원만 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삶과 같다.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하루 종일 육바라미를 실천하며 보현행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상(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일 뿐이다.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바라미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러나 이미 그 수준을 능가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해라, 말라라' 하는 것은 마치 대학생한테 초등학급 문제를 풀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6>



나는 이미 스스로 건넜으니, 마땅히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해야 한다

《마하반야바라밀경》 정원품(淨願品)

권진의 꿈

권진(勸進)이라는 말이 있다. 아니, 권진이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이 말이 쓰였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다. 하지만 일본불교사에서는 이 말이 널리 쓰인다. 예를 들면 나라 도다다지(東大寺)에는 17미터의 대불이 모셔져 있다. 그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에 교기(行基, 668-749)스님이 권진을 지내셨다. 교기 스님의 사례에서 유추해 보면, 권진이라는 말에는 어떤 불사의 총책임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도감(都監)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교기스님은 불사의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자금모금에 힘을 기울였다. 우리 말

"일본불교, 공부 좀 해봅시다!"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나를 사람들은 '일본불교의 전도사'라 부른다. 그 '전도사'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이 권진이다. 그렇지만, '일본불교의 권진'이라 부르기엔 나는 더욱 졸건다.

"권진 하실 분-?"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말아서는 아직 감이 안 잡힐지도 모른다. 다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모두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서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와 부처님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권진은 성립할 수 없다.



그림·박구원

로 하면 화주(化主)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권진'이라는 말의 개념은 도감과 화주의 일을 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불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하여금 보시를 하도록 권유하는 분을 권진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시주만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외라고 권유하면서 다니는 사람 역시 권진이라 했다. 그리고 보니, 애당초 이 '권진'이라는 말은 바로 정토신앙을 고취하는 경전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 마음을 권진하다(勸進其心)." 이때는 단연히 정토세계를 지향하면서 염불하기를 권유하는 것을 일컫었다.

나는 이 말이 좋다. 속된 말로 하면, '필(feel)이 꽃혔다.' 일본불교사 특유의 역사적 숨어지지만, 이를 다시 되살려서 못 쓸 일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애당초, 아니 본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을 권진이라 부르고 있다.

권진이 성립한다는 것은 오직 내가 바로 부처님을 등지고, 부처님을 등에 업을 때뿐이다. 즉 180도로 '뒤로 돌았!' 해야 한다. 그렇게 딱 반 바퀴 돌아설 때, 우리는 비로소 권진을 할 수 있다. 부처님을 등지고 부처님을 등에 업고 나면 우리 눈에 비로소 중생들이 보일 것이다.

중생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처님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권진이다. 이리하여 권진은 부처님과 나, 나와 부처님 사이라는 상호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다. 부처님과 나 외에 나와 중생이라는 관계가 새롭게 추가된다. 우리 불교의 포교가 지지부진하는 데에는 이 '권진(정신)의 부재'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미 스스로 건넜으니, 마땅히 아직 건너지 못한 자를 건너게 해야 한다." 권진 석재환인(=재석환)의 선언이고, 꿈이다. "나는 아직 건너지 못했다", "건넌 때까지"는 권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었으니, 마땅히 아직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금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스스로 건너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아직 스스로 다 건너지 못했다라든가 꼭 짓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나는 오늘 불교서적을 조금 읽었으니, 마땅히 아직 읽지 못한 자를 읽게 해야 한다." 우리 불교는, 이렇게 선언할 권진들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권진하실 분-? 권진 모집합니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 질병을 좌우하는 몸속에 숨은 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령인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확인
-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 3. 영가의 수준과약.

저급영가 : 환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 4. 난치병과 불치병뒤에 숨은 영가확인

매주 월, 수, 금 수련 / 오후 2시 / 보시금 1회 -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후에 상담 -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법

2기 힐링분석상담사 교육생 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 일반, 전문가 강좌

민간자격증으로 인체에 흐르는 氣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 영적인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 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우징의 기법을 통한 80가지의 에너지도형의 분석법

- 1. 일반인반 4회 책자 / 2. 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 및 강의)

3강좌 : 우리몸의 과거, 현재, 미래가 간직된 오오라장 일깨우는 차크라파동수련

1-7차크라 각성하여 초능력과 잠재능력을 발현의 원리 수행의 완성 난치병, 불치병, 병의, 정신병, 마음의 병, 업장소멸의 원리를 체험, 치유

월, 금요일 / 오전 10, 오후 4시 / 수련 선택(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과 마음의 병치유 업장소멸의 원리 체험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교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 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

진골 척추교정법 교육 안내문

상담전화 016-560-7868

척추교정 및 인체의 균형(밸런스) 조절교육 외과전문의 및 한의사, 건강에 관심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익혀야할 척추교정법!

MBN 천기누설 방송 (2012. 9. 20)에 소장이 직접교육시켰던 외과 의사 및 한의사와 같이 출연하여, 척추변형과 오장육부 질병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송에 출연한바 있음. (네이버 "진골척추" 검색 동영상으로 방송을 볼 수 있음) 소장은 2006년부터 한의사 수백여명과 다수의 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척추교정과 인체의 균형을 통합적으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 교육의 전문가임. 진골척추교정법은 카이로프라틱이 아닙니다!

귀의 상보하음고 부처님의 가계가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사중에 제반 불사가 원만 성취되시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소송이 진골척추교정법을 창시하신 임상만 원장님과 인연이 된것은 얼마 안되지만 원장님께 탁월하신 진골척추교정법을 전경하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암환자, 고질적인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와 척추교정을 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웃고가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웠습니다. 손으로 경추, 흉추, 요추, 천추를 보고 만지며 진단하여 교정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과정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하여 소송도 허리, 목, 등, 전립선 등이 불편하여 교정을 받았습니디. 편하고 시원하였습니다. 정좌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제반스님들께 추천합니다. 법체가 불편하신 법우님들과 불자님들께 권하오니 진골척추 교정법과 인연 지어 불사원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해동사 영도 동인 합장

'재물을 잃는 것은 인생의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세상만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못해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일들이 손조롭게 풀리지 못할때가 많은데요, 건강은 인간 최고의 복이요 양식이라고 불림만큼 중요하기에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소송도 10여년간 항시 등쪽과 오른쪽 허리가 빠근하고 시큰 거려서 출다는 운동법은 다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도반스님이 MBN의 천기누설과 방송을 한번 보라하기에 방송을 보다가 임상만 소장님의 진골척추교정법을 보면서 모든 질병과 만성병은 틀어집 척추와 골반에서 병이 온다는 임상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직접 진골척추교정법 교육을 3회정도 받고 보니 허리와 등뼈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몸소 체험한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무수한 질병을 외화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여년의 노력과 열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고자 진골척추교정법을 완성시킨 임상만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내가족, 친척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들을 완화시킬수 있는 것은 진골척추교정법 밖에 없는는 확신을 하면서 인연이 닿는 모든 분들이 익히고 배워서 고통과 질병 없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계룡산에서 도림 합장